

## (중남미)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4.9

### 1. 확산 동향

□ 계절적 요인과 열악한 보건환경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팬데믹 상황이 3월말부터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음.

- 콜롬비아를 위시한 각국의 봉쇄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경기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부상
- 브라질의 경우 방역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정치·사회적 불안요 소로 대두
- 4월 8일 현재(현지시각) 확진자(44,565명) 및 사망자(1,777명) 보고

표 1. 중남미 국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(2020.4.8., 현지시각)

국가 <sup>1)</sup>	확진자(명) <sup>2)</sup>	특징
브라질	16,195(822)	최초 확진자 보고(2.25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7)
멕시코	2,785(141)	최초 확진자 보고(2.28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8), WHO의 2 단계 팬데믹 선언(3.23)
에콰도르	4,450(242)	최초 확진자 보고(2.29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3)
도미니카공화국	2,111(108)	카리브 지역 최초 확진자 보고(3.1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6)
아르헨티나	1,715(63)	최초 확진자 보고(3.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7, 중남미 최초 사망자, 사후 확진)
칠레	5,546(48)	최초 확진자 보고(3.3), WHO 기준 팬데믹 4단계 개시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1)
코스타리카	502(2)	중미지역 최초 확진자 보고(3.6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8)
콜롬비아	2,054(55)	최초 확진자 보고(3.6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1)
페루	4,342(121)	최초 확진자 보고(3.6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9)
파라과이	119(5)	최초 확진자 보고(3.7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0)
파나마	2,528(63)	최초 확진자 보고(3.9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0)
볼리비아	210(15)	최초 확진자 보고(3.10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9)
자메이카	63(4)	최초 확진자 보고(3.10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8)
온두라스	343(23)	최초 확진자 보고(3.10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6)
쿠바	457(12)	최초 확진자 보고(3.11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8)
가이아나	37(6)	최초 확진자 보고(3.11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1)
SVG	8	최초 확진자 보고(3.11)
T&T	107(8)	최초 확진자 보고(3.12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5)
베네수엘라	167(9)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6)

국가 <sup>1)</sup>	확진자(명) <sup>2)</sup>	특징
우루과이	424(7)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8)
안티과 바부다	19(1)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4)
세인트 루시아	14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
과테말라	87(3)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15)
수리남	10(1)	최초 확진자 보고(3.1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3)
바하마	40(7)	최초 확진자 보고(3.15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1)
바베이도스	63(3)	최초 확진자 보고(3.17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5)
엘살바도르	93(5)	최초 확진자 보고(3.18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31)
니카라과	6(1)	최초 확진자 보고(3.18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3.26)
아이티	25(1)	최초 확진자 보고(3.19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5)
도미니카	15	최초 확진자 보고(3.22)
그레나다	12	최초 확진자 보고(3.22)
벨리즈	7(1)	최초 확진자 보고(3.23), <b>최초 사망자 보고</b> (4.5)
SKN	11	최초 확진자 보고(3.25)
33개국 총계	44,565(1,777)	

주: 1) 확진자 발생 시기 순, 2) 괄호안은 사망자 수

## 2. 경제적 영향

### □ 브라질

- 대중국 신규 육류수출가공공장 승인 지연(3.31)
  - 지난 1월 브라질-중국 간에 합의된 수출용 육류 가공공장 신속 승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관총서(GACC) 및 브라질 당국의 업무 정상화 지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신규 승인 중단 전망
  - 2019년 미-중 무역분쟁 와중에 중국은 브라질산 쇠고기, 돼지고기, 가금육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는데, 총 육류수출의 27%를 차지
- Bank of America, 2020년 성장률 전망을 -0.5%에서 -3.5%로 하향 조정(4.2)
  -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투자 및 소비 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연평균 환율도 4.8헤알에서 5.2헤알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
### □ 아르헨티나

- 코로나19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봉쇄 장기화가 빈곤 심화 초래 전망 (Oxford Analytica, 4.2)
  - 팬데믹이 야기할 경기침체는 물론 방역을 위한 봉쇄 장기화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를 초래
  -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2019년 하반기 기준 도시지역 인구의 35.5%인 1,450만 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한 바, 이는 1년 전보다 3.5%p(155만 명) 증가
  - 특히 극빈층은 8.0%(320만 명)으로 1.3%p(50만 명) 증가

- 14세 이하 아동 가운데 빈곤층은 52.3%로 520만 명을, 극빈층에 속하는 아동은 13.6%(140만 명)을 기록
-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의 빈곤은 더욱 악화되었는데, 빈곤층 비중은 1년 전 35.9%에서 40.5%로 늘어나고, 극빈층은 전국의 8.0%보다 높은 11.3%를 기록
- Fitch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사,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“선택적 혹은 제한적 디폴트”로 하향 조정(4.6)
  - 주요 요인은 팬데믹으로 외채 재조정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보건위기와 경기침체에 우선 대응할 필요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된 1,000억 달러 외화표시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(4.5)했기 때문임.
  - 반면 IMF 차관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재조정 협상 대상인 해외에서 발행된 690억 달러 부채 상환은 지속
- 우루과이: 성장률 전망 -0.1%(Oxford Economics, 4.3)
- 멕시코: 재무부(SHCP), 2020년 성장률 -3.9%, 2021년 1.5~3.5% 전망(4.1)
- 칠레
  - 중앙은행, 2020년 성장률을 -1.5~-2.5%, 2021년 3.75~4.75%, 2022년 3.0~4.0% 각각 전망(4.1)
    - 3월 중순에 시작된 경기침체는 2/4분기에 지속되다가 3/4분기에 반등 전망
    - 2019년 소요 사태 후유증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효과,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성(교역 감소, FDI 등 총고정투자 감소, commodity 가격 약세, 환율 변동성) 등 가중

### 3. 지역/정부의 대응

- 방역 대책
  - 쿠바: 국제선 여객항공기 도착 중단 및 모든 외국 선박 출항 명령(3.31)
  - 콜롬비아
    -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4월 26일까지 연장 조치(4.6)
      - 70세 이상 대상의 격리는 5월 30일까지 연장하고, 모든 교육시설은 5월 31일까지 폐쇄
      - 야외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엄격
      - 바이러스 보균자의 80% 이상이 무증상자임을 경고하면서,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과 집단지성을 강조
  - 바베이도스
    -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(3.26)에 이어 24시간 통행금지 발표(4.2)

-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적인 격리가 지켜지지 않자 엄격한 제한 조치 발동
  - 4월 3일 자로 매일 20:00부터 완전한 통행금지 실시
  - 슈퍼마켓, 미니 마트, 식당, 관공서 등 폐쇄 및 주류 판매 금지
  - 약국, 병원, 필수 서비스 접근 목적의 외출만 허용
- **엘살바도르**: 4월 19일 만료 예정된 강제 자가 격리 20일간 연장(4.6)
  - **자메이카**: 4월 1일 개시된 전국 야간 통행금지를 21일까지 연장(4.8)
    - 자가 격리 및 재택근무도 4월 21일까지 연장
  - **브라질**: 상파울루주,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봉쇄를 2주간 연장 조치(4.6)
    - 봉쇄 조치를 둘러싼 대통령과 州 정부들 및 보건부 장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군부도 대통령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  - **아르헨티나**: 의무적인 전국적 자가 격리 기간을 4월 23일까지 추가 연장(4.8)
  - **페루**
    - 비상사태 종결 시까지 모든 외국인의 비자 자동 연장(4.3)
      - 4월 12일로 예정된 격리기간이 끝날 경우에도 45일간 체류 가능
    - Holy Week 끝나는 동안 전국민 외출 금지령(4.7)
    - 4월 26일 까지 자가 격리 2주 연장(4.8)
  - **세인트루시아**
    - 4월 들어 추가 확진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일상생활로의 정상화 개시
      - 소규모 마트 및 빵집 제한된 시간에 영업 개시(4.1)
      - 전면적 통행금지(4.1~7)를 야간 통행금지(4.7~13, 19:00~05:00)로 완화(4.5). 단, 부활절 등 공휴일 제외
- **재정 및 금융정책**
- **칠레**
    - 중앙은행, 3월 16일에 이어 전격적인 금리인하 단행(3.31)
      - 2009년 이래 최저수준: 1.75% → 1.0%(3.16) → 0.5%(3.31)
      - 인플레이션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2/4분기 경기침체를 우려
  - **과테말라**
    - 의회, 가계 긴급재난지원금(1,000껏짚, \$130) 지급 승인(4.3)
      - 월 60억 껏짚(7.8억 달러) 소요

## ○ 멕시코

- 정부, 과학·문화 관련 100개 공공신탁기금 폐지 행정명령 발표(4.3)
  - 재무부(SHCP)는 경기부양, 사회프로그램 지출, 채무 상황 등에 2,500억 페소(100억 달러) 활용 예상
- 오브라도르 대통령(정부), 경제활성화계획 발표(4.5)
  - 가계 및 소기업을 위한 2백만 건 대출 제공
  - 연금 선지급 및 고령자 추가 지원
  - 67만 명 공무원에 개인 대출(20,000~56,000페소, 797~2,232달러) 자격 부여 및 고위 공직자 임금 삭감
  - 석유공사(Pemex)에 대한 650억 페소 세금 감면 및 주유소 유류가격 인상 제한
  - 공공사업(의료인, 사회질서) 확대를 통한 일자리 200만 개 창출
  - 반면, 세율 인상이나 세제 신설은 계획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4월 3일 발표한 공공신탁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달 계획
  - 그러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무부의 경제전망(-3.9%, 4월 1일)을 부인하는 동시에, 코로나19 팬데믹을 “과도기적” 상황으로 묘사하는 안일한 상황 인식을 표명

## ○ 브라질

- 하원, 코로나19 대응 재원(war budget) 조달을 위한 헌법 수정안 통과(4.3)
  - 연말까지 비상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반예산과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분리하려는 목적
  - 주말까지 상원에서 두 번의 표결(3/5 찬성) 절차 필요
  -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비상권한 부여

## ○ 도미니카공화국

- World Bank, 위기대응융자제도(CCL)의 일환으로 Cat-DDO 자금 1.5억 달러 지원(4.2)

## ○ 볼리비아

- 저소득 가계 지원 및 납세 연기조치 발표(4.1)
  - 4월 3일부터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가계보조금(family basket, Bs. 400) 지급: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없는 최소 소득자, 장애인 등
  - 4월 둘째 주에는 가계보조금(family voucher, Bs.500) 지급: 유치원생, 유치원 취학 전 아동, 초등학생
  - 납세 및 대출 상환 연기, 기타 기초서비스 요금 할인

## ○ 페루

- 의회, 연금가입자의 연금저축 25% 조기 인출 허용 법안 승인(4.3)
  - 연금저축액이 4,300솔(1,240달러) 이하 또는 12,900솔 정도일 경우 100% 인출 허용
  - 가입자 전원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 연기금회사 준비금은 약 215억 솔 소요
  - 440억 달러 정도인 페루 연금시장이 약 8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물로 쏟아낼 경우 내국환표시채 절반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  -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, 수정안 요청 혹은 서명 등 선택